

스포츠 포커스

광주체고 여자체조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광주체고 여고부 체조팀이 연습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애리 코치, 양혜림(1년), 탁보배(1년), 강은미(1년), 이수지(2년), 최민주(3년), 홍보미(1년), 이슬(3년).

구슬땀 먹는 '미래의 요정' 들



마루종목에서 선이 고운 점프 연기를 펼치고 있는 이수지양.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슬양이 이단평행봉에서 자이언트 스윙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파이팅, 파이팅!"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휘감던 7

일 늦은 오후, 광주체육고등학교 여고부 체조 연습장을 들어서자 10대 소녀들의 가녀린 '파이팅'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500명 남짓한 훈련장 한편에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젖은 이슬(18·3년) 양이 송진가부들 손에 땀뻑 바른 뒤 호흡을 가다듬고 이단 평행봉 연기에 몰입한다.

하지만 몇 차례 멋진 회전연기를 펼치던 이슬양은 인상을 찡그리더니 손을 놓고 만다. 자신의 뜻대로 안되는 모양이다.

정애리 코치(여·35)의 날카로운 불호령이 떨어진다. "너 허리 안 펴라. 집중하란 말야. 대회가 코앞인데 이렇게면 포기해".

본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마디를 내뱉는다. "더워서 그래요". 연습을 중단할 것 같던 이슬양은 이내 자세를 바로 잡고 다시 평행봉에 매달린다. 벌써 두 시간째다.

정 코치는 "국내 이단평행봉에선 이슬이가 최고인데 고급 기술을 한가지 더 추가했더니 힘들어 한다"고 귀띔한다.

괴서찰인 요즘, 광주체고 체조 연습장은 여자 체조팀 7인방의 힘찬 함성으로 기지개를 켜고 굵은 땀방울로 하루를 마감한다.

전국 여고부 최강팀으로 꼽히는 광주체고 여자 체조팀은 오는 15일 열리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체조대회

를 비롯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연일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9명의 체조팀원 중 배물음(2학년)과 전단비(1학년)가 지난 5월 '제39회 세계 선수권대회' 및 '제15회 아시안 게임' 대표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훈련장은 7명만 남아 있었다.

한창 꿈꿨고 멋부림 10대 소녀들의 여름 한뼘 무더위 훈련이 안타까워 질문을 던져봤다.

"괴서 안가고 싶니? 다른 친구들은 방학인데...".

도 15개(금11, 은3, 동1)의 메달을 쓸 어답았다.

올해에도 지난 5월 안동서 열린 전국 중별선수권대회와 체고대항 등 2개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를 획득하며 국내 여고 체조를 평정하고 있다. 팀원 9명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이뤄낸 결과물이다. 특히 태릉 선수촌에 입촌한 배물음양은 한국 여자체조의 보물로 꼽힌다.

이단평행봉과 평균대, 마루, 도마 등 4종목 모두 최상의 기량을 갖춘 배물음양은 특히 마루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인 훈련 분위기가 우리 팀의 가장 큰 힘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언니인 최민주(3학년)양은 "체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운동팀은 선후배간의 끈기잡기가 심하다"면서 "하지만 우리팀은 전통적으로 선후배들이 친자매 사이처럼 지낸다"고 말했다.

막동이인 강은미(1학년)양은 "훈련이 힘들때 언니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면서 "다른 스트레싱 없이 훈련에만 집중하다보니 실력도 무럭무럭 자라났다"며 민주 언니의 말을 거들었다.

이처럼 광주체고 체조부가 전국 최강으로 군림하게 된 밑바탕에는 최규동 광주체고 여고 체조감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최 감독(50)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배물음양 등 여러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서 키울 정도로 제자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그동안 최 감독의 집을 거쳐간 제자만도 어림잡아 20여명에 이른다.

최 감독은 "운동은 타고난 재능이냐 훈련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을 이해하고 같이 호흡하는 지도자의 마음 자체가 첫번째"라며 "정이 없는 강압적인 훈련방식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어도 최고의 선수는 만들어 낼 수가 없다"고 자신의 교육관을 내비쳤다.

최 감독은 또 "체조는 정신력과 훈련의 싸움"이라면서 "지루하지 않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개인별 장단점을 파악한 맞춤형 훈련이 광주체고의 가장 큰 노하우"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평균대에서 포워드 살토(앞으로 돌기) 기술을 연습중인 최민주양.

창단 27년... 한국女高 체조의 성지
선배들 명성 잇기...폭염 속 맹훈련

그러나 예상치 못한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땀흘린 만큼 밝은 미래가 있는데, 부럽긴요. 오히려 선배들이 쌓아놓은 정 코치는 "국내 이단평행봉에선 이슬이가 최고인데 고급 기술을 한가지 더 추가했더니 힘들어 한다"고 귀띔한다.

괴서찰인 요즘, 광주체고 체조 연습장은 여자 체조팀 7인방의 힘찬 함성으로 기지개를 켜고 굵은 땀방울로 하루를 마감한다.

전국 여고부 최강팀으로 꼽히는 광주체고 여자 체조팀은 오는 15일 열리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체조대회

를 비롯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연일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5월 안동서 열린 전국 중별선수권대회와 체고대항 등 2개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를 획득하며 국내 여고 체조를 평정하고 있다. 팀원 9명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이뤄낸 결과물이다. 특히 태릉 선수촌에 입촌한 배물음양은 한국 여자체조의 보물로 꼽힌다.

이단평행봉과 평균대, 마루, 도마 등 4종목 모두 최상의 기량을 갖춘 배물음양은 특히 마루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덤핑링 기술중 최고 난이도인 월번틀기(공중에서 뒤로 2바퀴, 옆으로 한바퀴)가 주특기다.

물음양은 지난해 대만컵 국제체조 대회에 출전, 단체 및 도마종목에서 2관왕에 오르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려냈다.

요즘처럼 방학 시즌이면 전국에서 이같은 광주체고 체조팀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또래 체조 유망주들이 몰려든다. 한국 여고 체조의 성지(聖地)인 셈이다.

이날도 부산체고 여고 체조팀이 이들의 훈련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처럼 광주체고 여고 체조팀이 전국 최강으로 자리잡는 데는 정(情)이라는 한 단어가 밑거름이 됐다. '사제간의 정', '팀원간의 정'이 그것이다.

이날 훈련을 마친 광주체고 '체조 소녀 7인방'도 끈기있는 훈련과 가족적

최대 60% 할인! 여름시즌을 맞아 모든 상품에 특별 할인!

패션모직 outlet 전대입구 사거리

패션모직 본사 직출상품만 취급 **60~40% 할인**

백화점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

패션모직 outlet

출장뷔페 · 도시락납품 · 위탁급식

회갑, 칠순, 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상당, 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 기념식

파티외식산업

시골 시내 출장전문
체육대회-어우회
식회-식사 무소지원
연회장 주차장 준비

문의전화 226-0885-7